

코우겐 (高原) 온천 · 연못 (沼) 둘러보기

다카네가하라 (高根ヶ原) 아래 삼림에는 작은 연못이 많이 있다. 코우겐 (高原) 온천을 출발하여 연못을 돌아보는 트레킹코스는 가을 단풍철에 특히 인기가 높다. 이 시기는 자가용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코우겐온천까지는 소운교우 (層雲峽) 에서 버스가 있다. 보도입구에 있는 불공정보센터에서 반드시 지도를 받아 출발하자. 불공과 만날 위험이 있을 때는 보도가 폐쇄되기도 한다.



코우겐온천 (高原温泉) 의 하이킹족



산 전체를 물들이는 단풍

다이세츠산 (大雪山) 의 단풍은 빠르게는 9 월 중순을 지날 무렵에 고산대에서 시작된다. 우라시마 철쭉과 게음 펜타페탈룸 (장미과 식물) 등의 작은 식물이 불타는 빨강으로 물이 든다. 단풍은 빠르게 산위에서 아래쪽으로 물들어 가며, 삼림대에 들어가면, 마가목, 사스레나무, 에조고로쇠, 계수나무 등의 나무들이 빨강, 황금, 노란색으로 물들어 산 전체가 아름다운 비단처럼 장식된다. 눈이 모든 것을 다 덮기 직전까지는 식물들의 향연이다. 코우겐 (高原) 온천 주변의 단풍은 특히 선명하다.

다이세츠 (大雪) 에 찾아온 가을



토무라우시산 주변

다이세츠 (大雪) 화산의 중앙 화구에서 남쪽, 다카네가하라 (高根ヶ原) 로부터 토무라우시산에 걸친 구역은 이 공원에서도 가장 「카마이민타라」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곳이다. 광대한 대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고산식물군락, 여기 저기 보이는 주빙하지형 등, 천상적인 세계가 전개된다.

이 지구는 당일치기 등산이 곤란하고, 피난산장을 이용하든지 텐트를 지참할 수밖에 없다. 토카치 (十勝) 연봉 등을 포함한 다이세츠산 지역에는 일본 알프스에 있는 것과 같은 설비가 갖추어진 오두막은 없다. 구로다케산 (黒岳) 석실 (石室) 과 하쿠운산 (白雲岳) 산장은 여름철에만 관리인이 있고, 그 외 츄우베츠산 (忠別岳), 히사고누마 등의 산장은 모두 무인이다. 또, 캠프는 지정지 이외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등산에 대해서는 각지의 탐방객안내센터 등에 문의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은 후 신중한 계획을 세우면 좋다. 주된 루트는 눈내리지 않는 시기라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코스는 아니지만, 장거리이므로 상급자용이다.



누마노하라에서 토무라우시산으로



토무라우시산의 종주로



폰카운산의 고산식물군락

칼럼

홋카이도 (北海道) 의 빙하 흔적

홋카이도의 빙하지형으로서 다이세츠산 (大雪山) 계의 남쪽에 있는 히다카 (日高) 산맥의 카르 (소규모의 빙하가 만든 반원형의 얇은 골짜기) 가 잘 알려져 있다. 히다카 산맥보다 표고가 높은 다이세츠산에도 각처에 카르형태의 지형이 있어 빙하퇴석과 같은 퇴적물은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카르일지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산의 형태를 만든 다이세츠산의 화산활동이 빙하가 발달한 최종 빙기보다 후의 보다 온난한 시기까지 계속 되고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폭발화구가 카르를 닮은 지형이 되는 경우도 논란이 되는 하나의 이유이다.